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슬기로운 '집콕' 생활



마스크 나만의 스타일로
집콕 버킷리스트 만들고
거리두기 하면서 꽃구경

시민들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달 넘게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기왕에 할 것, 마지못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활을 변화시켜나가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차피 해야 할 '사부'라든 재미있게, 슬기롭게, 나만의 개성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마스크, 기왕이면 '나만의 스타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패션 아이템이 됐다.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재질, 디자인, 색깔을 입힌 마스크를 착용한 젊은 층을 보는 게 어색하지 않고, 필드 교환 가능까지 갖춘 마스크들도 나왔다. 충창로 가판대 맨 앞자리에 놓인 것도 형형색색의 마스크다. 최근에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마스크까지 등장했다. 가격이 공적마스크의 10배에 달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학생 김모(아·25)씨는 최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12만원 짜리 면마스크를 샀다. 김씨는 매일 흰색 공적 마스크를 쓰는 것을 지겹게 느끼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마스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심했다.

감염병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징적인 물건이 '감사의 표시'로도 활용되고 있다. 직장인 정모(35)씨는 지난

주말 딸 돌잔치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마스크를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집에 꼭 박혀있어도 '재미있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갇혀있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변화를 줘 즐거움을 찾으려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에 떠도는 '집콕 버킷리스트'를 따라 자신만의 희망사항을 정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민들은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운동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직장인 송모(39)씨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홈트레이닝을 위해 게임기를 구매했다. 게임기는 몸의 움직임을 게임기가 인식하는 형태의 일명 피트니스 게임으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실내 운동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송씨 같은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애초 발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외식·출장 등이 사라지고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빠트렸거나 보지 못했던 방송을 몰아보는 시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 염모(29)씨는 "평소 광주와 나주를 출퇴근하면서 2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는데 재택 근무로 여유가 생겨 미스터트롯, 드라마킹덤 등을 '정주행' 하며 몰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지단체들도 이같은 시민들의 변화를 응원하고 있다. '집콕'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은 '주간예약대출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광산구의 경우 '드라이브 스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 안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김모(48)씨는 오는 4일 완도 신지해수욕장을 찾아 '드라이브 스루'로 광어·전복회를 맛볼 계획이다. 완도군이 광어회(450g)를 2만원, 광어회(450g)에 전복회(3피)를 추가한 것은 2만 5000원에 판매하는 할인 마케팅을 한다는 소식을 쫓아왔다.

정모(39)씨는 하동·구례 섬진강 벚꽃길을 '드라이브 스루'로 구경하고 올 계획이다. 연이은 벚꽃 축제에 취소되는데, 감염 우려를 들어 지역자치단체가 방문을 꺼리고 있는 만큼 차를 탄 채 꽃 구경에 나선 생각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 '불공정 논란'

평가 지표 구성·항목별 배점 수도권 인접 지역 절대 유리
투명성·공정성·전문성도 떨어져 ... 전남도 등 강력 반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부지 선정 기준과 관련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선정 평가 배점이 배후 도시 정주여건과 시설 접근성에 무게를 두면서 사실상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서 정부는 사업비 8000억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를 오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하는 내용으

로, 오는 8일 지자체 유치의향서 접수를 받아 사전 실무 현장 조사(4월 9일-28일), 유치계획서 접수(4월 29일), 발표 평가(5월 6일)를 거쳐 5월 7일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전남(나주)을 비롯한 인천(송도), 충북(오창), 강원(춘천), 경북(포항) 등 5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대상지 선정에 관한 평가 지표 구성과 평가 항목별 배점이 수도권에서 멸수목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점이다. 100점 만점에서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 분야의 경우 6개 세부 평가항목에서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여건(인구 등) 등 3개가 위치나 접근성 위주로 짜였다. 나머지 부지 제공 면적 등 기본여건, 지자체 지원에는 각각 25점이 부여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남·강원·충북·인천 등 4개 시도 가 지난 3월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는 전문가 3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 이상이 "접근성보다는 상생과 운영 품질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평가기준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경북도 등 비수도권 후보지를 중심으로 "연구자와 연구시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인접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부가 공개한 평가기준의 선정 절차에서도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후 사흘만인 27일 부지선정위원회가 평가기준 공고를 내는 등 지나치게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평가 지표 선정 역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의 적정성 검증,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하거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공모 전반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온라인 설명회에서 구제적인 설명 없이 '평가기준은 부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토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다같이 '민주의 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총선 D-12

2일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여·야 각당은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호남 탈환'을 강조하고, 현역 의원이 중심인 민생당은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다. 또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정당비례 득표에 공을 들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야당은 5·18민주묘지 등에서 출정식을 여는 등 '광주 정신' 계승자임을 앞세워 표발을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3, 4면>

여야, 5·18민주묘지서 출정식...본격 선거전

이날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이 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87명이 출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통합당 8명, 민생당 13명, 정의당 10명, 민중당 6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4명, 독자자유당 3명, 노동당 1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13명이다. 광주는 8개 지역구에 42명이 출표를 던져 5.25대 1의 경쟁률을, 전남은 10개 지역구에 45명이 등록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쟁률(광주 5.38대 1·전남 5.2대 1)보다 모두

낮아졌다. 여야는 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국립 5·18민주묘지 등에서 출정식을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5·18묘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5·18 정신 계승과 지역 발전의 비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생당 광주시당도 손학규·김정화·장정숙·김중배 선대위원장과 광주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5·18묘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5·18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5·18 민

주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출마 후보와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면 선거 운동 최소화 방침에 따라 별도의 출정식을 하지 않고 후보별로 선거 운동을 펼쳤다. 한편, 후보자는 2일부터 선거일 전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 3일 선거인 명부 확정, 5일 투표 용지·안내문 발송, 10~11일 사전투표, 15일 선거일정이 진행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